

## 1 개요

개미목은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있는 지명이다.

개미목이 명당자리임을 알아채고 문씨가 제주 목사에게 사정하여 부친의 묘 터로 쓴 이후 날개 달린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 2 내용

제주 목사가 풍수지리에도 능통해서 밤이 되면 개미목에 가서 명당을 확인했다. 그 부하인 문사령이 이를 알고 자신이 성공하려고 그 터를 달라고 애원한다. 마침 부친이 사망하자 그곳에 매장했는데, 그 날부터 힘이 세지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

문사령은 갑자기 힘이 생기자 주체하지 못하여 서울 경복궁까지 뺑뺑이 이동했다. 조정 대신들이 문사령을 잡기 위하여 도서관에 불을 놓았는데 그 뺑뺑이에 걸려서 결국 잡히고 만다. 포졸들은 문사령을 포박하여 개미목 묘지에 가서 땅을 파헤치자 소가 움직이고 있어서 베어 버리니 문사령의 힘도 사라졌다.

## 3 특징

‘개미목 명당자리’ 전설은 아기장수 전설과 유사하다.

## 4 핵심어

개미목, 목사, 문사령, 개미목밭, 상뒤꾼, 날개, 서월, 도적, 경복궁, 도서관, 용

## 5 원전 서지사항

개미목 명당자리(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6 관련 자료

고전적 부친묘(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아기(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사 구운문(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은 장수(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날개 돋힌 부대각(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날개 돋힌 아기장수(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1996)

명당에 얹힌 이야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산방산 금장지(禁葬地)(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파열된 명당(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힘센 장사 즈망이(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